

‘기들우’에 대한 음운론적·형태론적 연구

김 아 름*

I. 서론

본고의 목적은 현대국어의 ‘기다라’에 대응되는 중세어형 ‘기들우’를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음운론적·형태론적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문헌 자료를 관찰하여 이에 대한 답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기들우’와 관련된 제문제들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1) 가. ‘기들우’는 파생어인가?

나. 만약 파생어라면, ‘기들우’의 ‘-우’는 사동 접미사인가?

다.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모음조화 규칙에 어긋나는 ‘기오’가 빈번하게 출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들우’는 형태상 ‘기들- + -우’로 일차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만약 이때의 ‘-우’가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사동 접미사이고 ‘기들우’가 파생어라면, ‘기들우’에는 ‘기다리게 하다’와 같은 사동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 ‘기들우’가 사용된 문맥에서는 이러한 사동의 의미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들우’가 과연 파생어인가 하는 첫번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기들우’가 파생어라면 이와 같은 ‘의미와 통사 범주를 바꾸지 않는 파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생'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오/우'는 기존의 사동 접미사 '-오/우'와 동일한 것인지, 이와 같은 현상이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는지 등은 '기들우'가 가진 첫번째 문제점에 뒤따르는 문제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들우'는 '기들오'와 같은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모음조화 규칙을 어기는 어형을 쌍형어로 가지는데, '기들우'와 함께 '기들오'가 문헌 자료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고찰도 본고의 논의 대상이 된다.

이후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먼저 '기들우'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2장에서는 현대국어의 '기다리'의 형성 과정 및 '기들우'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 후 (1)의 세 가지 문제점 중 (1가)와 (1나)는 '기들우'에 대한 형태론적 논의를 펼치는 3장에서, (1다)는 '기들우'에 대한 음운론적 논의를 펼치는 3장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다.

II. '기들우'의 통시적 변화

현대국어에서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바라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어형은 '기다리'이다. 15세기에는 이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기드리-(기들아-), 기들우- 기들오-'를 사용하였다. 이밖에도 '기드라(기들아-), 기다라, 기들우-, 기들오-(기드로-), 기들오-(기도로-), 기두라'와 같은 형태가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문헌에서 발견된다.¹⁾ 본 장에서는 '기다리다'의 의미를 가진 이 아홉 종류의 어형들을 바탕으로 '기들우'의 통시적 변화 과정과, 현대국어의 '기다리'의 형성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우선 이 아홉 어형들 중 연결 및 분철상의 차이만을 가지는 어형을 제외한 나머지 어형들의 문헌상의 출현 시기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1) 이 외에도 '기들러', '기드러'와 같은 활용형이 소수 발견되는데, 이는 어간을 '기드르'로 인식한 결과라 여겨진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가. 구들에 싸하 두어 히여곰 썩게하야 五六日을 기들러 쁘라<新傳煮取焙方8b>

가. 그 7닥흠을 기들러 여섯 가마의 퍼 담야<新傳煮取焙方11b>

나. 판 속에다 병장 기드러거늘 이에 사르잡고<種德新編下: 49b>

〈표 1〉

	기드리	기들우	기들오	기드라	기다리	기들우	기들오	기도로	기두리
	-	-	-	-	-	-	-	-	-
15세기	○	○	○	×	×	×	×	○	×
16세기	○	○	○	○	×	○	○	○	○
17세기	○	○	○	○	×	○	○	○	×
18세기	○	○	○	○	○	×	×	○	×
19세기	×	×	×	○	○	×	×	×	×
20세기	×	×	×	○	○	×	×	×	×

더불어 (2)~(9)는 〈표 1〉에 제시된 각 어형들의 실제 문헌상에서의 쓰임을 보인 것이다.

(2) ‘기드라’

- 가. 人生 즐거븐 쁘디 업고 **주구물 기드리노니**〈釋譜詳節6: 5a〉
- 나. 엇디 **내의 ㄹ락치물 기드린** 後에야 行히리오〈御製內訓序: 5b〉
- cf. 반드시 맛보고서 **기들이며** 옷술 주시겨시든〈小學諺解2: 12b〉

(3) ‘기들우’

- 가. 쏘 ㅁ스물 가져 **아로돌 기들우디** 마룽 디니라〈蒙山法語5a〉
- 나. 願컨대 저기 **기들위** 아히 거슬 저주디 마르쇼서〈御製內訓3: 31b〉

(4) ‘기들오’

- 가. 네 몰로물 가져서 **아로돌 기들올** ㅁ스물 덜오〈牧牛子修心訣14a〉
- 나. 오슬 盛히 ㅎ고 ㅍ으와서 **오돌 기들오더니**〈御製內訓2: 106a〉

(5) ‘기드라’

- 가. 주글 **나를 기드리노라**〈순천감씨언간58: 11〉
- 나. 복된 ㅂ람이 잇서 **기드림으로** 표히느니라〈신학월보1: 36〉
- cf. 來年을 **기들인** 然後에 已흠이로다〈孟子諺解6: 24b〉

(6) ‘기다리’

- 가. 門 **두드리기들** 기다릴씨니〈女四書2: 22a〉
- 나. 주인 오기 **기다리네**〈신학월보1: 159〉

(7) ‘기들오’

- 가. 율흔 녀그되나 ㅍ러서 **기들올디니라**〈翻譯小學3: 30a〉

- 나. 이에 續을 屬하야 써 氣絶하기를 기들오느니(家禮諺解5: 2a)
cf. 반드시 임의 즈라물 기드론 後에 議昏하고(家禮諺解4: 3b)²⁾

(8) ‘기들우’

- 가. 반드시 씨 싹고 물 머리에 마조 기들우더니(小學諺解6: 97b)
나. 翠華스 보물 기들우느니라(杜重5: 14b)

(9) ‘기도로’

- 가. 귀운이 그쳐디는 듯 홀 재 잊거니와 저근덧 기도로면 해로오미 업고(臟藥
症治方22a)
나. 君子 | 幾를 見하야 作하야 日이 終함을 기도로디 아니 하느니(周易諺解6:
19a)
cf. 새 신초를 기들오고(家禮諺解9: 24a)

(10) ‘기두라’

- 가. 보기를 기두라다가(순친김씨언간72: 2)
나. 하 슈상하니 기두라다가 몬하여(순친김씨언간72: 3)

〈표 1〉과 (2)~(10)에 제시된 아홉 가지 어형들은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일차적인 분류가 가능한데, 그 기준은 어간말 모음의 종류가 될 것이다. 편의상 어간말 음절 모음이 ‘이’인 ‘기드라, 기드라, 기다라, 기두라’를 ‘기드라’계로, 어간말 모음이 ‘오/우’인 ‘기들우-, 기들오-, 기들우-, 기들오-, 기도로-’를 ‘기들우-’계로 부를 수 있다면, 전자와 후자는 출현 시기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낸다. 〈표 1〉을 통해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자면, ‘기들우-, 기들오-’의 경우에는 18세기 문헌에서 각각 하나의 예만이 발견된다. ‘기도로’가 18세기 문헌에서 세 차례 발견될 뿐이고, ‘기들우-, 기들오-’는 18세기 이후의 문헌에서의 용례가 전혀 없다는 것과 함께 본다면, ‘기들우-’계 어형들은 대개 17세기 무렵 정도까지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드라’계 어형들 중 언간문에서 단 두 차례 출현할 뿐인 ‘기두라’를 제외한 나머지 어형들, 즉 ‘기드라, 기드라, 기다라’는 각각 시기상의 차이를 두고 문헌 자료에 등장한다. 가장 먼저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어형

2) (2, 5, 7, 9)에 참고로 제시된 용례들은 연철 및 분철 표기의 예이다.

은 ‘기드라’이다. ‘기드라’는 ‘기들우-, 기들오-’와 함께 15세기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18세기까지 그 흔적을 보인다. ‘기드라’는 15세기 문헌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16세기부터 후대로 갈수록 더욱 빈번한 쓰임을 나타낸다. ‘기다라’는 18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유형의 문헌상의 출현 시기를 정리하자면, 15-16세기에는 ‘기들우’와 ‘기드라’ 두 계열의 어형이 모두 사용되다가, 18세기 이후 점차 ‘기드라’계만 사용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표 1>에 제시된 아홉 어형들은 모두 ‘ $C_1V_1C_2V_2C_3V_3$ ’의 음절 구조를 공통적으로 가지는데, 이 중 C_1V_1 은 언제나 ‘기’로 나타난다. C_2 가 ‘ㄷ’라는 점도, C_3 가 ‘ㄹ’라는 점도 동일하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면 V_2 와 V_3 의 종류인데, 이 중에서 V_2 에 해당하는 모음의 종류는 ‘- , ㅏ, ㅑ’이다. ‘-’와 ‘ㅏ’, ‘ㅑ’, ‘ㅓ’의 관계에 대해서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있었던 ‘ㅏ’의 제1·2단계 변화와 관련지어 음운론적인 기술이 가능할 듯 여겨진다. 이에 V_2 의 문제를 일단 차치하고 본다면 ‘ $C_1V_1C_2V_2C_3V_3$ ’ 중 어느 정도의 공통성이 발견되는 부분인 ‘ $C_1V_1C_2V_2C_3$ ’가 본래의 어기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가능할 수 있다. 즉 ‘기들-’로 대표될 수 있는 형태가 여기이고, 여기에 다른 요소가 결합되어 ‘기들우’와 관련된 어형들이 형성된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V_3 에 해당되는 모음의 종류가 ‘이’와 ‘오/우’로,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피·사동 접미사와 동일한 형태를 가진다는 점을 통해, ‘기드라’계는 ‘기들-’에 접사 ‘-이’가, ‘기들우’계는 ‘-오/우’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들-’은 두 가지 종류의 파생을 경험하여 각기 다른 파생어를 만들어내고, 이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달해 나간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앞서 언급하였던 ‘ $C_1V_1C_2V_2C_3V_3$ ’의 V_2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기드라’와 ‘기드라’, ‘기다라’의 문헌상에서의 출현 시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기드라’는 ‘기드라’에 ‘ㅏ’의 제1단계 변화가 적용되어 형성된 어형으로 간주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ㅏ’를 보유한 어형들은 한결같이 16세기에 들어서야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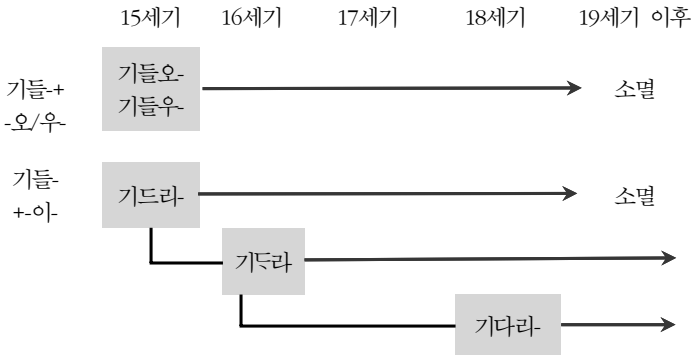
이와 같은 추정이 가능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드라’의 ‘ㆍ’는 오히려 ‘ㆍ > 一’에 대한 역표기 내지는 역현상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15세기에는 ‘ㆍ’로 표기된 예가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ㆍ’의 제1단계 변화로 인해 ‘一’와 ‘ㆍ’간의 혼란이 야기된 16세기에 들어 ‘기드라’가 나타났다는 것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기드라’는 ‘ㆍ’의 제2단계 변화인 ‘ㆍ > ㅏ’를 겪어 ‘기다라’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ㆍ’의 제2단계 변화는 어두 음절에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ㆍ’의 소실로 인해 대립관계의 혼란이 심했었던 당대의 모음 체계 내에서는 가능한 변화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기드라’가 ‘기다라’로 변화되었다면, 그 전에 있었던 ‘기드라 > 기드라’ 사이의 변화는 단순한 역표기가 아닌, 실제 음성상의 혼란이었을 수 있을 것이다. ‘기도로’와 같이 ‘ㅏ’를 가지는 어형은 ‘ㆍ > ㅏ’의 변화를 겪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ㆍ’의 소실 시기 이후에 나타나는 ‘ㆍ’는 표기상의 보수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5·16세기 문헌에 나타나는 ‘ㆍ’ 표기는 ‘一’와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17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ㆍ’는 오히려 ‘ㅏ’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도식화한 것이 아래의 <표 2>이다.

<표 2>



이에 의하면 현대국어의 ‘기다리다’의 직접적 소급형은 ‘기드라’가 될 것이다. ‘기드라’가 ‘기드라 > 기드라 > 기다라’의 과정을 거쳐 ‘기다리’가 되어 현재까지 사용되는 한편, ‘기들우’계 어형들은 18세기경 소멸되어 현대국어에는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III. ‘기들우’에 대한 형태론적 고찰

본 장에서는 본고의 1장에서 제기한 질문(1가, 나)를 중심으로 ‘기들우’에 대해 형태론적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본고에서 우선 관심을 가지는 문제는 “‘기들우’가 정말 파생어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기들우’는 형태상 ‘기들 + -우’로 일차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여기서의 ‘-우’는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사동 접미사이고, ‘기들’은 ‘기들우’와 같은 ‘기다리다’의 의미를 가지는 어기이다. 그러나 문제는 형태적인 분석이 아닌 ‘의미’에 있다. 만약 ‘기들우’가 ‘기들’에 사동 접미사 ‘-우’가 결합되어 형성된 파생어라면, ‘기들우’에는 ‘기다리게 하다’와 같은 사동의 의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실제 ‘기들우’가 사용된 문맥에서는 그러한 사동의 의미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들우’가 과연 파생어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11) ‘기들우’³⁾

- 가. 또 막스물 가져 아로돌 기들우디 마롱 디니라(蒙山法語5a)
- 나. 겨집과 아히에 박를 기들울신 쏘 가노니(杜詩諺解7: 29b)
- 다. 너희 다 그저 예서 기들우라(龜譯老乞大下: 18b)
- 라. 밭죽을 녀허 괴요돌 기들위 묵안즈면 마시 들오 도흐니(救荒撮要8b)
- 마. 안자서 주그물 기들우디 말라(痘瘡集要上: 38a)
- 바. 그림 그린 헛를 기들우눗다(杜詩諺解 重刊本5: 52b)
- 사. 願컨대 저기 기들위 아히 거슬 저주디 마르쇼서(御製內訓3: 31b)

3) 편의상 (11가, 사)는 (3)의 예를, (12가, 사)는 (4)의 예를 다시 가져와 보인 것이다.

위의 (11)은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기들우’의 용례를 보인 것이다. 이 중 몇 개의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11다)는 ‘너희’에게 여기에서 ‘기다리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으로, ‘너희’가 주어인 이상 이 문장에서 사동의 의미는 전혀 파악될 수가 없다. 또 ‘기들우’가 사동사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목적어 논항도 (11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너희’를 주어가 아닌 목적어 논항으로 간주한다면, 이 문장은 ‘너희를 다 여기에서 기다리게 하라’와 같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고 만다. (11사) 역시 목적어 논항이 없는 문장으로, 여기에 쓰인 ‘기들우’를 사동사로 파악할 수는 없다.

목적어 논항이 존재하는 (11가, 나, 라, 마, 바)의 경우에도 이들 문장에 쓰인 ‘기들우’를 사동의 의미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1라)의 경우 ‘쌀죽을 넣고 가라앉는 것을 기다린다’는 의미로만 해석될 뿐, ‘쌀죽을 넣고 가라앉는 것을 기다리게 한다’라는 의미로는 파악되지 않는다.

이처럼 의미 면에서, 더불어 목적어 논항의 존재 여부 면에서 ‘기들우’를 사동사로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기들우’가 사동사가 아니라고 할 때에, 이 어형에 대한 해석으로는 두 가지가 가능할 수 있다. 첫째는 ‘기들우’는 파생 접사에 의해 형성된 ‘파생어’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고, 둘째는 ‘기들우’가 파생어는 파생어이되, 여기에 결합된 ‘-우’가 사동 접미사가 아닌 제3의 접미사라는 것이다.

‘기들우’나 ‘-오/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의는 아니지만, 李賢熙(1987)의 논의는 위의 두 가지 견해 중 전자의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李賢熙(1987: 8-9)에서는 우선 ‘뵈- → 뵈기(橫), 든- → 들어(走), 기들 → 기드라(待)’ 등과 같이 의미와 통사 범주 면에서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는 ‘-이’ 파생을 경험하는 용언류들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중 ‘뵈기’는 〈小學諺解〉에서 타동사로 쓰이는 예가 있기는 하나(‘풀을 뵈기디 아니 함’ 〈小諺3: 17〉), 허웅(1964: 135)의 지적처럼 〈杜詩諺解〉 초간본의 ‘뵈-’이 중간본에서는 ‘뵈기’로 고쳐져 있으므로, 의미나 품사의 차이없이 ‘-이’가 더 들어 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논의에 의하면 이때의 ‘-이’는 대개 능격성과 관련되어 논의될 수 있는 것이며, ‘거슬- → 거스

라, 다술- → 다스라, 쿛- → 그치’ 등도 이러한 ‘-이’와 관련되는 것이지 사동의 접미사에 접매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李賢熙(1987)에서는 이러한 ‘-이’에 대해 선행어기의 동작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뚜렷이 부각시키는 요소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李賢熙(1987: 8-9)는 의미와 통사 범주를 바꾸지 않는 ‘-이’를 사동의 접미사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기들우’의 ‘-우’ 또한 의미와 통사 범주를 바꾸지 않는 요소이므로 이 역시 李賢熙(1987)의 견해대로라면 사동 접미사가 아닌 것이 된다. 李賢熙(1987)에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문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불리 단정지를 수는 없지만, ‘-이’나 ‘-우’가 사·피동 접미사가 아닌 또 다른 제3의 접미사가 아닌 이상 ‘기들우’를 파생어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李相億(1980)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의가 펼쳐진다. 이 논의는 ‘울이아-, 나토오-, 마초오-, 가도아’ 등과 같은 ‘사·피동 접미사의 중첩형’⁴⁾에 대해, 이들은 아무런 구문상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나 경우에 따라 단일형으로는 다소 약하게, 또는 불분명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분명하게 강화시키는 口調상의 기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역시 의미와 통사 범주를 바꾸지 않은 채 결합되어 있는 요소에 대해, 파생의 차원에서는 다루지 않는 논의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구본관(1997)에서도 이와 유사한 맥락의 견해가 제시된다. 이 논의에서는 의미나 통사 범주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파생접미사 중에서 용언 어간을 어기로 가지는 ‘-이’를 대상으로, ‘-이’가 15세기 국어에서 어느 정도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식적으로 의미와 통사범주를 바꾸지 않는 파생접미사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다른 파생접미사에

4) 이 논의에서 다루고 있는 ‘사·피동 접미사의 중첩형’은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의미와 통사 범주를 바꾸지 않는 ‘-오/우’와 일정 부분에 있어 유사한 개념이다. 李相億(1987)의 예 중 ‘-오/우’가 결합된 ‘나토오-, 마초오-’의 경우, ‘나토-, 마초-’와 ‘나토오-, 마초오-’가 의미 및 통사 범주상 아무런 차이를 가지지 않으므로, ‘사·피동 접미사의 중첩형’에 대한 李相億(1980)의 해석을 ‘의미와 통사 범주를 바꾸지 않는 ‘-오/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유추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미 또는 통사 범주를 바꾸는 일반적인 파생 접미사와는 다른 것으로 간주한다. 이 논의 역시 ‘-아’가 접미사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은 유보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접미사와는 다른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李賢熙(1987), 李相億(1980)의 논의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위에 언급한 두 가지 견해 중 후자의 입장에서 서 있다. 즉 ‘기들우’는 파생어이고,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우’는 파생 접미사라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만약 용언 어간과 바로 결합하고 있는 ‘-우’가 파생 접미사가 아니라면 이를 활용 어미, 그 중에서도 선어말어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5세기에 이미 의도법 혹은 인칭·대상 활용의 선어말어미로 존재하고 있었던 ‘-오/우’와 ‘기들우’의 ‘-우’는 형태만 같을 뿐, 기능과 분포면에서 아무런 공통점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선어말어미 ‘-오/우’는 어간의 말음과 연결된 표기가 얼마든지 가능하나, ‘기들우’의 ‘-오/우’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연결 표기가 가능하지 않다.⁵⁾

(12) 가. 내 이제 흰히 줄겹과라〈法華經諺解2: 137b〉

나. 우리들히 毒藥을 그르 머구니 願흔든 求療호샤〈月印釋譜17: 17b〉

위의 (12)는 선어말어미 ‘-오/우’가 사용된 문장의 예를 보인 것이다. 이 중 (12가)에서는 확인법의 선어말어미 ‘-거’에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된 채로 실현되었고, (12나)에서는 선어말어미 ‘-우’에 어간말 자음이 연결 표기되어 있다. 이는 앞 장의 (3), (4)를 통해 보았던 ‘기들우-, 기들오-’의 경우와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는 ‘기들우’를 파생어로, 그리고 여기에 결합되어 있는 ‘-오/우’를 파생 접미사로 간주하고자 한다.⁶⁾

5) 사동 접미사 ‘-오/우’가 어간 말의 자음과 연결되어 표기되지 않는 이유는, ‘-오/우’가 ‘-ㅅ/ㅆ’ 혹은 ‘-ru(-)~gu-’에서 기원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오/우’의 기원이 ‘-ㅅ/ㅆ’라는 주장은 李相億(1980)에, ‘-ru(-)~gu-’라는 주장은 李基文(1962)에서 찾아볼 수 있다.

6) 하지만 이러한 관점이 앞서 살핀 기존의 논의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

한편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문헌상에는 의미와 통사 범주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 ‘-오/우’가 결합된 예가 ‘기들우’ 외에도 상당수가 발견된다.

(13) ‘과-, 괴오-’(‘괴다’)

가. 飢 飢 餓 餓 飢 飢 두(訓蒙字會下: 6a)

나. 우흐로 하늘홀 괴오며 아래로 사홀 괴오고(金剛經三家解序: 1b)

나'.支는 서르 잡드러 괴올씨니(釋譜詳節9: 18a)

(14) ‘마리-, 마리오-’(‘가리다’)

가. 正 眞 知見을 마리느니라(圓覺經諺解下2-1: 36b)

가'. 增上慢 眞는 전즈로 므스미 마리느니(釋譜詳節9: 14a)

나. 能히 히 덕될 마리오느니(月印釋譜11: 29a)

나'. 煩惱와 涅槃이 서르 마리오디 몬호미 이 待 그추미라(圓覺經諺解下2-1: 57b)

(15) ‘나토-, 나토오-’(‘나타나다’)

가. 無緣慈를 뛰우샤 神通力을 나토샤(月印釋譜序: 6a)

가'. 能히 나토며 곧 더 心體 쏘 能히 나토미 이니 곧 이 現識이라(月印釋譜 11: 74a)

나. 眞實스 一乘을 나토오리라 헝시는 쓰디라(釋譜詳節13: 60b)

나'. 혹 국왕 신도 나토오며 혹 지보 신도 나토오며(地藏經上: 15b)

(16) ‘돛-, 돛오-’(‘애뜻하게 사랑하다’)

가. 내 身命을 돛디 아니코(法華經諺解4: 198a)

가'. 衆生을 念호디 미디 아니호며 돛디 아니호야(月印釋譜9: 42a)

나. 淒涼 眞 부디 양즈를 돛오고(杜詩諺解 重刊本8: 25a)

나'. 이 모를 가져 내 더러우며 고름 흘러 돛오디 아니커늘(圓覺經諺解上 2-2: 25a)

(17) ‘브리-, 브리우/오-’(‘부리다’)

가. 여러 번 말 브리시고(西宮日記23b)

니다. ‘기들우’가 15세기에 이미 어휘화되어 있었다면, 기존의 주장과 같이 더 이상은 이를 어기와 접사가 공식적으로 결합하는 파생의 과정으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이들을 문헌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15세기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파생 접미사를 분석해 낼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기들우’의 형성에는 파생의 절차가 관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일 뿐이다.

- 나. 이 들 들 집 브리우고 오랑 느추고 마함 벗기고<翻譯老乞大上: 39b>
 나'. 술위 집 브리오다<譯語類解下: 23a>

(18) ‘세-, 세우-’(‘세우다’)

- 가. 부텃 솜리로 七寶塔 세습논 양도 보리리니<釋譜詳節13: 14b>7)
 가'. 至忠이실씩 中興主를 세시니<龍飛御天歌2: 1>
 나. 이 들 초열흘날 婚書을 세오고 定體를 드리고<林通事諺解上: 41b>
 나'. 몸을 세워 道를 行하야<小學諺解2: 29a>

(19) ‘지피-, 지피우-’(‘찌푸리다’)

- 가. 눈살 지피다<同文類解上: 20>
 가'. 늙어 살 지피다<漢清文鑑5: 43>
 나. 눈살 미이 지피오다<역해상: 38>

위의 (13)-(19)는 ‘-오/우-’가 결합된 어형과, 결합되지 않은 어형 사이에 아무런 의미와 통사 범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예들을 보인 것이다. 능격동사인 경우는 각 번호의 ‘가’에서 타동사 용법의 문장을, 각 번호의 ‘가’에서 자동사 용법의 문장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13)-(19)에 제시된 어형들은 다시 두 가지 부류로 하위 분류가 가능한 듯 보인다. ‘나토-, 세-, 브리-’는 ‘-오/우-’가 결합되지 않은 용언 어간 자체에서도 사동의 의미가 파악되고, ‘-오/우-’가 결합된 어형에서도 사동의 의미가 파악된다. 반면 ‘과-, 그라-, 듯-, 지피-’는 ‘-오/우-’가 결합되지 않은 용언 어간에서도, ‘-오/우-’가 결합된 어형에서도 사동의 의미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

(18)의 ‘세-’와 ‘세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세-’는 자동사 ‘서-’에 사동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이미 ‘세-’만으로도 사동의 의미가 온전히 실현되고 있으며, ‘서-’는 자동사, ‘세-’는 타동사라는 점에서 통사 범주도 바뀌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5)의 ‘나토-’ 역시 자동사 ‘남-’에 사동 접미사 ‘-호-’가 결합되어 파생된 사동사이므로, ‘나토-’ 자체만으로도 이미 사동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세-’와 ‘나토-’의 경우

7) 대격표지가 나타나 있지 않기는 하지만, ‘七寶塔’이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음은 문맥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에는 여기에 ‘-오/우’가 다시 결합된다 하여도 의미와 통사 범주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17)의 ‘브라’는 사동 접미사가 결합된 어형은 아니지만, 어간 자체가 ‘누군가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다’라는 사동의 의미를 가진다.⁸⁾ ‘브라’ 역시 ‘-오/우’가 결합된 ‘브리우’와 의미와 통사 범주상의 차이가 없다. 반면 ‘과-, ㄱ리-, ㄷ-, 지 -’는 본래의 어간에서도, ‘-오/우’가 결합된 어형에서도 사동의 의미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기들우’는 이 중 후자의 부류에 포함된다.

정리하자면, (13)~(19)에 제시된 어형들은 ‘-오/우’가 결합되기 전과, 결합된 후의 의미와 통사 범주상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할 수 있지만, 파생 전과 후에 모두 사동의 의미를 가지는 유형과, 파생 전과 후 모두 사동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유형으로 다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이 중 전자의 유형에 대해서는 구본관(1997)에서 주장된 것과 같은 일종의 ‘유추’ 작용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⁹⁾ 즉 사동 접미사 ‘-오/우’가 결합하여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사동사 파생의 과정에 유추하여 사동과 관련된 표현에 ‘-오/우’를 잉여적으로 넣게 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나토오-, 세우-, 브리우’에 결합되어 있는 ‘-오/우’는 사동 접미사 ‘-오/우’와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후자의 유형은 파생 전의 의미도, 파생 후의 의미도 사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여기에 전자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후자의 유형, 즉 ‘괴오-, ㄱ리오-, ㄷ오-, 지꺾우-, 기들우’에 결합되어 있는 ‘-오/우’는 전자의 유형에 결합되어 있는 ‘-오/우’와는 다른 성격의 접미사일 가능성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때의 ‘-오/우’를 진정한 의미의 ‘의미와 통사 범주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로 파악하고자 한다.

8) ‘브라’ 역시 ‘세-, 나토’와 마찬가지로 ‘*블’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어형일 수도 있으나, ‘브라’의 어기가 될 만한 의미를 가지는 ‘블’의 문증되지 않으므로 지금으로서는 ‘브라’ 자체를 하나의 단일 어간으로 파악한다.

9) 구본관(1997)에서는 의미와 통사 범주를 바꾸지 않는 ‘-이’에 대하여, 15세기의 피·사동 접미사 ‘-이’에서 유추되어 나타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구본관(1997)에서는 ‘-오/우’는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IV. ‘기들우-’에 대한 음운론적 고찰¹⁰⁾

후기 중세국어 시기는 모음조화 규칙이 비교적 엄격하게 존재하던 시기로, 설소축 계열의 모음 어간(혹은 어기) 뒤에 어미나 접사가 결합될 때는 동일 계열의 설소축 모음이, 설축 계열의 어간(혹은 어기) 뒤에는 설축 모음이 결합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기들-’의 경우, 어기의 모음이 설소축 계열인 ‘ㄱ’이므로 여기에 사동접미사가 결합할 때는 역시 동일한 설소축 계열인 ‘-우’가 결합하여 ‘기들우-’로 파생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얼핏 모음조화 규칙의 예외인듯 보이는 ‘기들오-’와 같은 형태도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빈번하게 관찰된다.

(20) ‘기들우-’¹¹⁾

- 가. 쪼 믱스물 가져 **아로돌** **기들우디** 마룻 다니라(蒙山法語5a)
- 나. **겨집과 아히에** **박돌** **기들울식** 쪼 가노니(杜詩諺解7: 29b)
- 다. 너희 다 그저 예서 **기들우라**(飜譯老乞大下: 18b)
- 라. 쌀죽을 너허 **괴요돌** **기들위** 묵안즈면 마시 돌오 도 흐니(救荒撮要8b)
- 마. 안자서 **주그를** **기들우디** 말라(痘瘡集要上: 38a)
- 바. 그림 그린 **헛를** **기들우놏다**(杜詩諺解 重刊本5: 52b)
- 사. 願컨대 저기 **기들위** 아히 거슬 저주디 마르쇼셔(御製內訓3: 31b)

(21) ‘기들오-’

- 가. 네 몰로물 가져서 **아로물** **기들울** 믱스물 덜오(牧牛子修心訣14a)
- 나. 南嶽鳳이 **우루물** **기들오노니**(杜詩諺解 初刊本8: 25a)
- 다. 내 그저 예서 **기들오리라**(飜譯老乞大下: 1b)
- 라.坐흐야 써 **아춤** **기들오더시다**(孟子諺解8: 13b)
- 마. 다 喫흐여 써 **기들오거든**(家禮諺解7: 6b)
- 바. 명에 메여 **토돌** **기들오며**(杜詩諺解 重刊本25: 49b)
- 사. 오솔 盛히 흐고 피오와서 **오돌** **기들오더니**(御製內訓2: 106a)

10) 이 장의 내용은 많은 부분을 김아름(2008: 29-34)의 기술에 기대고 있음을 밝힌다.

11) 논의 전개에 편의상 (20)의 예는 본고의 3장에 제시된 (11)의 예를 가져와 보인 것이다.

(20), (21)은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문헌에서 발견된 ‘기들우-, 기들오-’의 용례를 보인 것이다. (20사), (21사)의 용례는 18세기 문헌에서 발견되는 유일례이다.

문헌상에서 ‘기들우’가 ‘기들오-’보다는 빈번하게 관찰되지만, ‘기들오-’를 단순한 오류나 예외로 처리하기에는 매우 많은 예가 발견된다. 또한 접미사 ‘-오/우’와의 통합시 모음조화 규칙을 어기는 것은 ‘기들오-’에만 국한된 현상도 아니다. 아래의 (22)~(29)는 모음조화 규칙을 지키지 않는 파생의 예를 보인 것이다.

(22) ‘머들오-’

- 가. 디는 히에 王母를 머들오시고〈杜詩諺解 初刊本6: 12a〉
- 나. 파히 떼여 보며 머들오디〈小學諺解5: 101b〉
- 다. 주글 썩니언덩 머들오고저칸마른〈杜詩諺解 重刊本22: 52b〉
- 라. 눈에 머들오디 아니히며〈御製內訓1: 9b〉

(23) 세오-

- 가. 흥문 세오시고 시호을 통절이라 히시니라〈續三綱行實圖 重刊本 忠: 3b〉
- 나. 가廟를 西京의다가 세오고〈家禮諺解1: 8a〉
- 다. 寶纛 天子의 세오논 독〈譯語類解上22a〉
- 라. 皇帝 일흠을 세오시니〈御製內訓2: 108a〉

(24) 어을오-

- 가. 몸이 어을오도 머리 제여고밀씩〈月印千江之曲49a〉
- 나. 空을 엇데 어을오리오〈楞嚴經諺解3: 70a〉

(25) 멀오-

- 흔 눈을 멀오거나 귀며 코흘 히야브리거나〈警民編 重刊本10a〉

(26) ‘혈오-’

- 가. 귀 고흥 혈오며 더러운 거스로〈警民編 重刊本10b〉
- 나. 쏘 부리를 침으로 혈오고 브툼미 더 도히니라〈救急簡易方3: 15b〉

(27) ‘저들오-’

- 가. 거지븐 閨門 안해서 나를 저들오고〈內訓1: 77b〉
- 나. 계지븐 黉門 안해서 나를 저들오며〈黽譯小學3: 21a〉

(28) ‘브리오-’

가. 말 브리오시고 너던의셔 소기디 말마<癸丑日記上: 31a>

나. 나그대들히 다른 디 브리오디 아니호고 다 더기 브리오느니<老乞大諺解上: 10b>

다. 이 금녕은 가히 브리오지 아닐 거시니<加髻申禁事目3b>

(22)의 ‘머물오-’, (28)의 ‘브리오-’는 15세기 문헌에서부터 19세기 문헌에 서까지 그 용례를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23)의 ‘세오-’는 15세기의 용례는 확인할 수 없지만 16세기 이후 여러 문헌에서 빈번하게 사용된다. ‘어울오-, 멀오-, 혈오-, 저물오-’는 그 쓰임이 빈번하지는 않지만, 문헌상에서 그 존재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위의 (22)~(28)의 예들은 한영균(1994)에 의해 ‘형태론적 유인에 의한 형태소의 단일화’ 현상으로 규정된 바 있는 ‘ㄷ’-ㄱ’가 적용된 어형들이다. ‘ㄷ’-ㄱ’ 현상은 15세기, 혹은 그 이전 시기에 형태소 경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설소축 계열의 모음 어간(혹은 어기) 뒤에 어미나 접사가 결합될 때 동일 계열의 ‘ㄷ’ 대신 설축 계열의 ‘ㄱ’가 결합되는 현상을 말한다[김아름(2008: 30)]. ‘기들우-’와 함께 ‘기들오-’가 나타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이형태의 단일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고는 지금까지 ‘기들우-’와 관련된 음운론적·형태론적 제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기들우-’와 관련된 형태론적 논의에서는 우선 ‘기들우-’를 파생어로 간주하고, ‘기들-’에 접미사 ‘-오/우-’가 결합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단, 이때의 ‘-오/우-’는 사동 접미사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의미와 통사 범주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류이다. 그리고 ‘기들우-’와 같은, 파생 전과 후에 의미와 통사 범주상의 차이가 나지 않는 어형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목록들을 두 가지 하위 범주로 유형화하였다. 그 중 하나는 파생 전과 후에 모두 사동의

의미를 가지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파생 전과 후 모두 사동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유형이다. 이 중 전자에 결합되어 있는 ‘-오/우-’는 사동 접미사 ‘-오/우-’인 것으로, ‘기들우-’가 속하는 후자의 유형에 결합된 ‘-오/우-’는 의미와 통사 범주를 바꾸지 않는 ‘-오/우-’가 결합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기들우-’와 관련된 음운론적 논의에서는 15세기, 혹은 그 이전 시기에 존재하였던 문법 형태소에서의 이형태의 단일화 차원에서 ‘기들오-’의 존재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현대국어의 ‘기다리-’의 형성에 대해서는 ‘기들-’에 두 가지 종류의 파생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기드라-’와 ‘기들우-’가 각기 다른 발달 과정을 거쳐, 현대국어의 ‘기다리-’로 남은 것으로 기술하였다.

참고논저

- 姜吉云(1972), 「限定法(挿入母音 오/우)에 대하여」, 『덕성여대논문집』 1.
- 곽충구(2004), 「함북방언의 피사동사」, 『한국어문학회』 85, 1-36.
- 구본관(1996), 「중세 국어 형태」,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 1.
- _____ (1998), 『15세기 국어 과생법에 대한 연구』(國語學叢書 30), 太學社.
- 金周弼(1988), 「十五世紀 被動接尾辭의 異形態와 그 分化科程에 대하여」, 『冠嶽語文研究』 13, 45-71.
- 김아름(2008), 「국어 고모음화 현상 연구」, 이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유범(2001), 「15세기 국어 문법 형태소의 형태론과 음운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종록(1990), 「중세국어 부사형성 접사 ‘-이/히, -오/우’에 관한 연구」, 『문학과 언어』 11.
- 김형배(1996), 「20세기 국어의 사동사 과생에 관한 연구」, 『한말연구』 2, 65-90.
- _____ (1999), 「16~17세기 국어의 사동사의 변화」, 『한말연구』 5, 96-115.
- 유필재(2007), 「후기중세국어 부사과생접미사 ‘이’의 형태음운론」, 『國語學』 49, 3-31.
- 李基文(1962), 「中世國語의 特殊 語幹 交替에 대하여」, 『震檀學報』 23, 119-153.
- 이래호(2008), 「‘머무르다’의 통시적 고찰」, 『韓國言語文學』 64, 95-120.
- 李相億(1980), 「使動, 被動語幹形成接尾辭에 대한 多角的 考察」, 『안암어문논집』 21, 121-138.
- 이현희(1987), 「중세국어 ‘둔겁’의 형태론」, 『震檀學報』 63, 133-150.
- 장윤희(2006), 「고대국어의 과생접미사 연구」, 『國語學』 47, 91-144.
- 정승철(2007), 「피동사와 피동접미사」, 『震檀學報』 104, 127-146.
- 鄭仁浩(2006), 「제2음절 이하의 ‘ㅇ’變化에 대한 一考察」, 『震檀學報』 101.
- 韓榮均(1991), 「母音體系의 再定立과 現代國語의 非音節化」, 『震檀學報』 71.
- 한영균(1994), 「후기중세국어의 모음조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영균(1996), 「모음조화 예외출현 비율에 대한 통시적 해석」, 『冠嶽語文研究』 21.
- _____ (1996), 「모음조화의 붕괴 유인에 대한 재검토」, 『울산어문논집』 11.